

김윤덕 장관, “27년 현대차 투자 본격화에 발맞춘 사전 준비체계 완비”

- 14일 국토부·현대차그룹, 새만금 투자지원 TF에서 지원방안 논의
- 새만금 투자 전 과정에 걸쳐 국토교통부가 주무부처로서 적극 지원

-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5월 14일 오후 국토발전전시관에서 국토부 차원의 새만금 투자지원 방안을 점검하고, 기업의 건의사항을 청취하였다.
 - 이번 회의는 지난 4월 13일 첫 회의 이후, 실무 협의를 통해 논의해 온 지원과제의 추진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구체화하는 한편,
 - 추가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없는지 기업과 함께 살펴보고, 새만금 투자의 차질없는 이행과 관련된 협력 의지를 다지고자 이뤄졌다.
- 이날 회의에서는 새만금 투자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부지 확보, 기반 인프라 구축, 교통망 확충, 정주여건 개선 등 핵심 지원과제의 이행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하였다.
 - 국토교통부는 새만금 사업 주무부처로서 투자 전반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속도감 있게 마련해 나가고 있으며,
 - 기업의 과감한 투자에 정부도 과감한 지원으로 응답하겠다는 원칙 아래,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방안을 지속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.
- 김 장관은 “27년 현대차그룹의 AI데이터센터 착공과 함께 본격화될 새만금 투자가 즉시 이행될 수 있게 국토부가 적극 지원할 것”이라면서,

- “새만금 투자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오늘 논의된 지원과제들이 조기에 적극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고, 투자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는 시점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”고 강조하였다.
- “기업이 안정적으로 투자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와 행정 지원 측면도 다시 되짚어 볼 것”이라고 밝혔다.
-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필요한 지원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·관리하고, 협력이 필요한 분야에서는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.

담당부서	국토정책관 성장거점정책과	책임자	과 장	백승호 (044-201-3684)
		담당자	사무관	박예슬 (044-201-3693)
			주무관	권순웅 (044-201-3698)